

廣東婦女運動考

金 稔 子*

I. 序 言

II. 中國國民黨의 婦女政策

1. 政策의 思想的 基低

2. 婦女政策

III. 大革命期의 婦女運動

IV. 「廣東女界聯合會」의 抗戰運動

V. 結 語

I. 序 言

근대사회에 이르러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녀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남자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生存權은 물론이며 사회발전의 一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論議가 일게 되었다. 이것이 점차 하나의 社會問題로 浮刻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부녀운동이 추진되어오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경향은 近代中國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상당수의 부녀들이 국가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이른바 天經之義로서 男女를 天地·陰陽에 비교하여 男女의 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三綱·五倫의 禮의 秩序가 男性爲主의 宗法社會의 家族制度存續의 근거가 되었음은 다 아는 바이다. 따라서 婦女는 중국사회 발전에 남성 못지 않은 공헌을 하면서도 公的으로는 社會構成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男尊女卑의 관념에 지배받으면서 閨門內에서 지내왔던 것이다.

*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科 教授

그리하여 父家長의 倫理 속에서 설정된 規範과 秩序로 인한 慣習—畜妾·纏足·守節強要·再嫁禁止·七去之惡(이혼의 모순)—들은 부녀들로 부터 自主의 人間으로서의 삶의 主宰者,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前提로 하는 參政權·敎育機會의 均等·경제적 독립을 위한 就業機會을 포착하려는 노력으로 집약되는 부녀운동의 추진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그런 중에 부녀들로 하여금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식을 提高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이는 清末民國初에 이르는 기간동안 활약한 開明知識人 남자들에게 힘 입은 바가 크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곧 부녀들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참여시킬 만큼 큰 힘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 다만 婦女를 社會的 論議의 대상으로 浮上시키고 당시 중국이 처한 어려움(서양제국의 중국진출·異民族支配의 脫皮 등)을 극복해 나가는 한 方便으로서 부녀의 사회의식을 提高시키고 그들이 가진 힘을 授用받으려는데 더 큰 뜻이 있었다. 保國·救國·保種을 意圖하면서 各己의 知識人들은 婦女의 潛在力의 啓用을 論議한 것에 불과할 뿐 부녀운동의 실제로 直結시킨 것은 아니다.

결국 近代中國의 婦女運動의 목표는 救國運動과 相互聯關이 不可避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운동목표는 救國運動과 婦女解放이라는 相互密接한 두 관계 속에서 목표를 設定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본질적인 부녀운동은 救國運動에 의하여 留保될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해석을 어렵지 않게 한다.

한편으로 近代中國婦女運動 역시 國民黨과 共產黨이라는 두개의 서로 다른 정치집단·정치세력의 對立過程에서 그 각기의 領導力에 따라 운동 방향과 목표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나가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中國革命의 策源地로서의 廣東을 중심으로 國民黨 治下에서 진행되었던 부녀운동을 高찰함으로써 國共對立과정에서의 兩

面對應的 婦女運動의 樣態의 一面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國民黨·共產黨 治下에서 추진되었던 近代中國婦女運動史의 綜合的 考察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리라고 본다.

II. 中國國民黨의 婦女政策

1. 政策의 思想的 基低

中國의 國民大革命의 主導者는 孫文이다. 그가 추진한 革命의 思想的 基盤은 三民主義였음은 다 아는 바이다. 따라서 婦女政策의 사상적 출발점 역시 三民主義일 것임은 自明한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孫文의 婦女觀 내지 婦女運動에 대한 見解나 주장과 直結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다.

孫文은 중국혁명의 목표가 中國의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는데 있다(‘在來中國之自由平等,’ 遺囑)고 술회한 바 있다. 여기서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남자중심적이거나 아니면 남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婦女의 존재를 인정했었느냐가 그의 부녀관의 기본적 성격을 밝혀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孫文은 同盟會를 중심으로 혁명을 추진하던 시기에 이미 「軍政府宣言」 속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我漢人同爲軒轅之子孫 國人相視 皆伯叔兄弟諸姑姊妹 一切平等 無有貴賤之差 貧富之別”¹⁾

이라고 밝혔고 그후 廣東女子師範學校에서 행한(1924년 4월) 강연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부녀를 明示하고 있다.

“中國有國民四萬萬 一半是男人 一半是女子”²⁾

1) 黨史會編, 『國父全集』, 第1冊, 臺北, 1973, p. 287.

이와 같이 부녀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 손문에게 있어서 三民主義의 실현은 부녀해방을 후원하는 입장이라고 보아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孫文의 三民主義思想의 體系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變容되었던 면은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초기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겠다.³⁾ 따라서 위에서 밝힌 바의 태도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孫文의 婦女運動에 대한 태도는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중국에서 실현해 보고자 한 中國國民革命의 기본목표의 하나로 생각한 것이라고 해석하여도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부녀운동의 방향 내지는 중국부녀운동의 特質은 三民主義의 理念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지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로 民族至上主義의 실현이 부녀운동 추진의 前提라는 점이다. 민족적 해방, 즉 異民族의 支配로부터의 해방이 이룩된 후에 婦女解放이 추진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부녀운동의 목표는 民族解放을 于先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즉 民族解放이 婦女解放의 母體가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民權平等의 實現이다.

부녀운동의 목표는 남녀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皇帝專制時代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도 참정권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부녀해방의 목표에 앞서 이것은 혁명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혁명과업의 성취에 따라 부녀들도 國事의 管理者로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⁴⁾

2) 孫文, “女子須(要)明白三民主義,” 『婦女問題重要言論集』,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宣傳部, 1928, pp. 1~23 참조.

楊白元, “三民主義의 婦女運動,” 『婦女月刊』, 4卷 1期, 1944. 10, pp. 2~6.

徐 慧, “國父論婦女運動,” 『婦女月刊』, 4卷 3期, 1945. 4, pp. 8~13.

梁 銳, “孫中山先生對於我國婦女運動的貢獻,” 『中國婦女』, 1956. 12, pp. 1~2.

3) 王德昭, “同盟會時期孫中山先生革命思想的分析研究,” 『中國現代史叢刊』, 吳相湘主編, 第1冊, 1960, pp. 65~188.

同 上, “孫中山先生革命思想之研究”, 同上, 第2冊, pp. 119~276 참조.

세계로 民生福利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그는 강조하였다.

중국의 大同의 近代의 개념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總體的 自由를 指向하고 있는 바와 같이 孫文의 民權主義는 단순히 政治上的 自由平等的 參與뿐만 아니라 경제상으로도 總體的 自由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4억 중국인의 豐衣豐食의 民生主義와 그 맥을 함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대다수의 農工婦女的 경제적인 劣位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녀운동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육의 기회平等, 公共機關의 참여활동, 과학적이고 예술적이며 근대적인 생활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農工婦女的 교육, 同工同酬을 근거로 하여 母性·童工보호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노동법의 제정 및 勞工婦女的 組織을 통한 부녀의 福利增進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三民主義의 근본이념과 관련하여 그의 부녀운동관을 파악해 볼 때 결국 中國國民革命의 진행과 성취과정에서 부녀운동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

이것은 중국공산당을 영도하였던 毛澤東의 부녀관과 유사하면서도 덜 적극적인 견해라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모택동은 중국에서 사회주의 공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다수 농촌부녀를 동원하려고 노력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는 시대는 달라도, 남녀는 모두 한가지이며, 남동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동지도 할 수 있다. 또는 '전국부녀가 봉기하는 날 중국의 혁명은 승리하는 날'이라는 등 남녀능력의 동등성까지를 역설하면서 부녀들의 잠재력을 啓用하려는 태도와는 비교되는 것이다.

4) 註 2) p. 2.

徐輝琪, "孫中山對婦女解放的支持," 『中國婦女』, 1981년 10월. pp. 2~4.

5) "婦女須明白三民主義," pp. 5~6.

Charlotte L. Beahan, "Feminism and Nationalism in the Chinese Women's Press. 1902~1911," *Modern China*, Vol. 1 No. 4, 1975, pp. 379~415.

6) 梁寒操, "三民主義與婦女," 『抗戰以來婦女言論集』,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臺北, 1945, pp. 29~33 참조.

그러나 부녀해방이 혁명의 성공 후에 이루어진다는 前提의 조건과는 동일한 견해이다. 다만 그들의 견해가 左右翼의 서로 다른 사상의 方向性일 뿐이다. 결국 부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녀들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男女合作의 결과일 것으로 그들은 모두 생각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그들은 부녀를 사회구성원이라는 前提아래 혁명의 추진세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모색한다는 意圖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부녀들이 가진 潛在力을 啓發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중국국민당 부녀정책의 사상적 바탕은 중국혁명의 創導者로서의 孫文의 기본사상인 三民主義 정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처해있던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은 훗날 民主·民權·民生의 목표가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된 부녀정책으로 일관할 수 없었음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2. 婦女政策

중국국민당의 사명은 국민의 혁명적 力量을 이끌어서 자유와 평등을 爭取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4億의 중국국민의 반인 부녀들의 발전을 꾀하는 정책의 수립은 당연한 課題였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政策이 없이는 전통적 사회 속에서의 부녀의 권리나 위치에 변화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국민당 문헌 중에 부녀문제에 대한 견해를 가장 일찍이 밝힌 것은 1905년 가을에 발표된 〈同盟會宣言〉에서 찾을 수 있다.

“第一期爲軍法之治…既破壞者及未及破壞之地方行政 軍政府總攝之 以須掃除積弊 政治之害…風俗之害如奴婢之蓄妾 纏足之殘忍…亦一切禁止”⁷⁾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積弊제거에 대한 주장일 뿐 부녀를 동등한 입장으로 格上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 黨史委員會編, 『中國國民黨宣言彙刊』, p. 6.

그후 1912년 8월 25일 「振興女子教育 增進女子智識 發達女權」⁸⁾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부녀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孫文의 男女平等의 원칙은 黨綱이나 宣言에 구체적으로 反映되지 못한 단계였다.

1919년 10월 10일 中國革命黨이 國民黨으로 改稱되며 그 規約 중에,

“凡中華民國成年男女 與本黨宗旨相同者 由黨員二人介紹 並具願書於本黨 由本黨 發給證書 始得爲本黨員”⁹⁾

이라고 男女에게 당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이 부여됨을 정하고 있다. 이어서 修正規約 總章(1920. 11)에 「凡中華民國成年男女 皆有進本黨之權利義務」¹⁰⁾라고 밝힘으로써 권리·의무면에서도 동등함을 규정하는 진전이 나타난다. 이처럼 부녀의 지위에 새삼스럽게 관심을 구체화하는데에는 5·4 運動期の 여러 변화(예컨대 女權의 提唱)가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924년 1월 20일 廣州에서 개최되었던 中國國民黨 一全大會에서는 對內政策이 확정되었다. 우선 民權實現을 위하여 구체적 정책의 원칙이 결정되었던 바 있다. 즉,

“民權主義爲謀直接民權之實現 與完成男女平等之全民政治 人民有右列各權：1)選舉權，2)創制權 3)復決權 4)罷免權”¹¹⁾

이 있음을 明示하였다.

더 나아가서 國民黨改進黨章 中(胡漢民·王精衛 起草)에서는 「確認婦女與男子地位平等 並扶助其均等的發展」¹²⁾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부녀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중국의 사회경제적인 諸要件변화의 뒷받침이 전제되

8) 皮以書, 『中國婦女運動』, 臺北, 婦聯書刊社, 1973, p. 15.

9) 黨史會編印, 『中國革命文獻』, 1968, 8輯, p. 1.

10) 同上, p. 15.

11) 同上, pp. 39~40.

12) 同上, pp. 38~39.

어야만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宣言은 國內政策 第12條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삽입되게 된다.

“於法律上 經濟上 社會上 教育上 確認男女平等之原則 扶助女權的發展”¹³⁾

이는 중국부녀운동의 가장 적절한 방향과 원칙을 提示해 준 快事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부녀운동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戰略을 세워서 實現해 나가야만 하는 하나의 課題가 남았을 뿐이다.

中國國民黨은 이때 확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婦女委員會〉를 設置한다. 黨綱 總章에 보면 機構設置目的은 다음과 같다.

“以調查國內外婦女狀況 並研究國內婦女問題之解決方法”¹⁴⁾

즉 國民黨은 黨의 婦女政策은 婦女委員會가 主管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 목표는 諸面에 있어서의 男女平等原則이 實現할 수 있는 女權의 발전에 있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內政 第11條에는 婦女運動에 適用될 口號를 다음과 같이 列舉하고 있다.

1. 男女教育平等
2. 男女職業平等
3. 男女在法律上絕對平等
4. 男女工資平等
5. 保護母性
6. 保護童工
7. 贊助勞工婦女的組織
8. 打破奴隸女性的禮教

13) 同上, p. 128.

Norma Diamond, "Women under Kuomintang Rule: Variations on the Feminine Mystique," *Modern China*, Vol. I No. 1, 1975, pp. 3~45.

14) 同上, p. 42.

9. 反對多妻制
10. 反對童養媳
11. 離婚結婚絕對自由
12. 反對司法機關對於男女不平等的判刑
13. 社會對於再婚婦女不得蔑視 應一律待遇
14. 女子應有財產權與承繼權
15. 婦女應急起參加國民革命¹⁵⁾

이러한 口號들은 결국 12條의 諸方面에서의 男女平等原則을 실현할 수 있도록 女權伸張을 추구하는 목표임을 나타내는 口號들이라고 하겠다. 國民黨은 그러한 平等原則을 具現하기 위하여 다음 各項을 實施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實施方針이 모두 실현되기에는 國內外的 諸與件이 장애가 되었다.

甲. 法律方面

1. 制定男女平等的法律
2. 規定女子有財產承繼權
3. 從嚴禁止買賣人口
4. 根據結婚離婚絕對自由原則 制定婚姻法
5. 保護被壓迫而逃婚的婦女
6. 根據同工同酬 保護母性及童工原則 制定勞動法.

乙. 行政方面

1. 切實提高女子教育
2. 注意農工婦女教育
3. 開放各行政機關 容納女子充當職員
4. 各職業機關開放
5. 籌設兒童寄託所¹⁶⁾

이상과 같은 상황들이 순조로이 執行될 수 있다면 ‘凡爲國民皆平等’(同盟會 綱令 第3條)의 理想의 실현이며, 모든 국민이 安락하고 快樂한 삶

15) 皮以書, 前揭書, pp. 17~18 再引.

(原載『中國國民黨歷次會議宣言及重要決議案彙編』, p. 100)

16) 同上革命文獻, pp. 128~129.

을 누리도록 해주려는 국민대혁명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정책 내용이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부녀의 입장이 퇴진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발표된 몇개의 國民黨의 결의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즉,

“對於女子教育 尤須確認以培育博大慈祥之健全母性之必要爲依歸”¹⁷⁾

해야 한다고 하였고, 國民黨 三全大會(1929년 3월, 南京)에서 통과된 〈確定教育宗旨及其實施方針案〉第6條에는,

“男女教育機會均等 女子教育並須注重陶冶健全德性 母特性之特質 並建設良好之家庭生活與社會生活”¹⁸⁾

이라고 부녀교육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같은 해 黨中央執行委員會에서는 실제의 공작과정에서 黨의 사명을 밝히는 중에,

“早婚與不自由之婚姻 與溺嬰·蓄婢·納妾·纏足·穿耳 束胸等不合衛生之陋習與反科學之迷信 均應漸次設法開導破除”¹⁹⁾

라고 하여 현실문제의 해결을 바탕으로 하여 男女平等의 原則을 具現하고자 노력하는 政策方案을 수립해왔다.

요컨대 國民黨 婦女政策의 기본방향은 男女가 평등한 民主社會의 具現을 목표로 하는 婦女運動을 추진하는데 있었다. 실제로 第二全大會(1927)에서 통과된 〈婦女運動決議案(第2條)〉에서는 부녀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침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즉,

“婦女運動之方針 除領導婦女群衆參加國民革命外 同時尤應注意婦女本身的解放”²⁰⁾

17) 皮以書, 上揭書, p. 16, 1928. 中國國民黨國慶文中.

18) 同上.

19) 『中國國民黨一·二·三次全國代表大會集刊』, p. 169.

20) 『革命文獻』, 8輯, p. 42.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부녀운동을 革命的 正路로 이끈다.
2. 압박받는 대다수 부녀(이경우 農工婦女)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다.
3. 부녀역량을 단결하여 자유와 평등의 중국을 건설하도록 한다.

이렇게 볼 때 국민당 부녀위원회가 領導하였던 부녀정책은 革命을 완성해야 한다는 애국구국운동과 남녀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부녀해방운동의 兩面的인 것이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相互補完的이라거나 相衡모순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혁명과업이 진행되는 과정·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부녀본연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란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더욱 큰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國民黨의 黨僚들은 생각했던 것같이 보인다.²¹⁾ 따라서 國民黨이 創導한 부녀정책에는 近代婦女運動의 목표인 부녀해방이란 受容될 餘地가 없었던 것이라는 해석마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더라도 中國國民黨 婦女政策은 孫文이 主唱한 民族·民權·民主主義의 理念에 근거하였던 自由平等의 國家社會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부녀들을 그 사회의 직접적인 구성원으로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신에 背馳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이점은 國民黨의 政綱·宣言·規約 등에서 면면히 밝힌 바 있다. 또 그 이후에 確定한 民法의 基本정신²²⁾에서도 男女平等原則은 계승되었던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중국의 국내외의 정치상황과 사회적 인습으로 인하여 본래의 정신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뿐이었음을 알게 된다.

21) 註 2) pp. 20~21 (女子須明白三民主義)

「外國女子爭參政權 不知費了多少能力 犧牲了多少心血 還有許多國家爭不到 予中國革命之後 不要女子來爭 便給予參政權 議會中設立女議員」

22) 胡漢民, “新民法的新精神,” 蔣永敬編著, 『民國胡展堂先生漢民年譜』 臺灣, 商務印書館, 1981, p. 451.

「男女平等: 此爲本黨一貫政策 在法律條文中 祇稱爲「人」而不分性別 號論男女 其行爲能力之限制與保障 均屬相同」

Ⅲ. 大革命期の 婦女運動

근대중국의 혁명을 추진하는 세력의 집합체로서 同盟會가 결성된 후로부터 혁명세력은 부녀문제에 注意를 기울여왔다. 또 혁명세력 속에 우수한 女同志들(예컨대 鑑湖女俠 秋瑾·唐群英·吳淑卿·尹銳志·維俊姉妹)을 가졌던 터이지만 부녀운동을 主導할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同盟會나 國民黨의 부녀정책의 不在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의 지배아래에서는 부녀운동의 추진이 불가능하였다는 역설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이점은 1924년 第1次 國民黨全國代表會議의 결의로서 설치한 婦女委員會의 存續·移管등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부녀위원회는 설치 직후 새로이 설치된 〈民衆訓練委員會〉 휘하에 工人部·商人部·青年部를 비롯한 4部の 하나로 移屬된다. 抗日戰 이후 1938년에 설치된 社會部로 이속되어 모름지기 民衆運動의 一部로서 부녀운동이 취급되었다. 이것은 부녀들이 사회구성원의 半이라고 인정한 그들의 인식과 실제 정책면에서의 반영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후 中國國民黨 第5屆 7中全會(1940.7)에서는 婦女部の 설립이 재론되었으나 霧散되었다. 그후 사회부가 行政院으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國民黨 組織部에 移屬된다. 그리하여 黨의 省·縣單位支部에 〈婦女會〉를 조직하여 社會基層領導機構로써 婦女政策을 집행하는 工作行爲를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機構의 存廢移管이 부녀운동의 추진·담당기구로서의 변화들 겪었다고 하여 부녀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곧 三民主義정신을 망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共和政을 이룩하고자 하는 國民大革命을 추진하려는 정책에 모든 역량을 結集시킨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래의 부녀운동의 정신이 소홀히 취급되었을 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淸王朝의 中國支配와 수천년에 걸친 專制君主支配體制를 무너뜨리고 中華民國의 共和政을 성립시킨 것이 辛亥革命이다. 그러나 袁世凱政權의 성립으로 인하여 혁명의 본래정신은 퇴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辛亥革命的 성격이나 그 역사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승리와 실패라는 두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신해혁명 평가에서는 근본적으로는 近代中國이 처하였던 半植民地的인 복잡한 상황과 國民黨과 共產黨이라는 두정치 세력권의 성장과 대립이라는 對內的인 정치상황, 더우기 革命的 地域的 展開와 그 특성에서 起因되는 여러 제약들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廣東은 中國革命的 策源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中國의 어느 도시보다도 革命的 性向이 두드러지리라는 사실은 짐작이 어렵지 않다. 또한 中國의 各地로부터 혁명의식이 투철한 많은 사람들의 集結地였고 또 西歐와의 접촉시기가 일렀기 때문에 西歐文明에 가장 익숙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녀들의 경우에도 타지역에 비하여 볼 때 혁명의식이 높았다. 그리하여 혁명대열에의 참여시기로나 방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면을 찾아 볼 수 있다.

근대중국에 있어서 부녀들의 혁명운동에 참여시키는 대체로 同盟會성립 이후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경우는 수로나 그 방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령 秋瑾·張竹君·唐群英·王昌國·沈佩貞 등의 활동(이 경우 혁명적이라고 할때 정치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이 시기적으로 소급될 수 있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개인적인 차원의 혁명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同盟會 革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 중에서는 光復會나 女子軍의 단원이 되기도 하지만 소수의 지식부녀, 대체로 日本留學生으로서 傳統의 타파나 혁명의식의 선전자로서 교육에 종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孫文이 지적한 바

있는 立黨·宣傳·起義의²³⁾ 세가지의 혁명행위 중 立黨·宣傳에 주력한 것이다. 비록 수는 적어도 여성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주로 掩護工作이나 醫療·軍餉運輸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武昌起義로 비롯된 辛亥革命을 계기로 그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혁명이전 부녀들의 활동은 주로 渡日유학을 한 지식인 부녀가 중심이 되어 혁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부녀교육에 종사하는 개별적인 예가 많았던 데 비하여 辛亥革命 이후 그 범위는 넓어진다. 우선 가정주부·女工·학생들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활동범위도 선전·혁명교육에서부터 捐募·革命軍 등에 勤務·掩護聯絡·起義·運輸·暗殺·偵探등 그 역할이 다양해졌다.²⁴⁾

이러한 革命志士의 부녀활동은 上海·天津·廣東·長沙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을 만들고各地的 특징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달랐다.

廣東의 경우 革命宣傳을 위한 刊行物출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²⁵⁾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좀 늦지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는 「勞勳與婦女」²⁶⁾ 五四時期에 「光明」²⁷⁾과 같은 공산혁명적 정치의식을 鼓揚시킬 목적에서

23) 林維江, "同盟會時代女革命志士的活動," 『中華學報』, 2卷 2期, 1975.

『中國婦女史論集』, 鮑家麟 編著, 臺北, 牧童出版社, 1979, pp. 296~345 참조.

24) 張其均 主編, 『國父全書』, 臺北, 國防研究院, 1963, pp. 104~105(中國革命史).

24) 朱秀成, "辛亥革命中的婦女," 『華中師院學報』, 1980年 1期, pp. 42~49.

25) 鮑家麟, "辛亥革命時期的婦女思想," 『上揭, 中國婦女史論集』, pp. 287~8(原載『中華學報』, 1卷 1期, 1974.1).

26) 中共中央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著作編譯研究室編, 『五四時期期刊介紹』 2集上, 1959, pp. 80~85. 同 2集續, pp. 647~650(目錄)

1921년 2월 13일에 창간된 진보적인 내용의 4開 4版의 小報로서 週刊이었다. 비록 1921년 4월 24일 11期로서 停刊되었으나 계급제도아래에서 압박계층은 노동자와 부녀임을 지적하고 계급타파와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공산혁명에 적극적으로 부녀가 참여하도록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陳獨秀·陳公博·讀鳴謙(平山)·沈玄廬 등이 집필과 편집을 맡았다.

27) 『中國婦女』, 1981년 10월호, p. 23. "黨領導的早期婦女刊物簡介."

1925년 5월 中國共產黨영도하에 있던 廣東婦女解放協會의 기관지로 창간되었다. 공산당원 王一如가 편집을 맡았다. 창간호는 〈廣東婦女協會會刊〉으로 月刊이었으나 同年 9월 〈光明〉으로 改稱된 것이다. 1926년 4월부터는 雙月

선전잡지들이 출판되었다. 이것은 국민당의 혁명사업추진력의 소극적인 일면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환언하면 廣州에서 추진되었던 근대부녀운동은 표면적으로는 國民黨의 領導 아래에서 진행된 右翼의 革命運動에 적극적으로 부녀운동이 연결된 것으로 보이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영향권속으로 유도되고 있었을 것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同盟會 結成을 前後한 시기로부터 1937년 7월 中日戰爭 勃發前까지 廣東을 중심으로 추진된 부녀운동은 어떠하였는가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광둥에서는 혁명의 필요성을 선전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한 바는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 留學時節에 黨指導人物들과의 交遊나 交信을 통하거나²⁸⁾ 혹은 他地域에서 간행된 부녀잡지²⁹⁾들을 통하여 혁명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辛亥革命에 가담했던 대표적인 부녀들은 다음과 같다.

“莊漢翹・陳淑子(胡漢民妻)・胡寧媛(胡漢民妹)・李自平(馮自由妻)・李佩書・徐宗漢・徐慕蘭・鄧蕙芳・李擯薇・劉守初・陳若魂・黎錦暉・潘幽芳・余黛宗・張佩華・何雄傑”³⁰⁾

이들의 상당수는 渡日留學生이며, 廣東의 續華女學校, 擯芳女子學校에서 배출된 혁명투사들이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革命工作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刊이었고, 1926년 6월 停刊되었다.

寄稿者들의 대부분이 國民黨員을 접했던 左派의 인물들, 鄧穎超, 區夢覺・蔡暢・鄧中夏・張太富・吳玉章・周恩來・陳延年 등이다.

28) 何香凝, “我的回憶”, 『辛亥革命回憶錄』, 1冊, 1962, p. 20.

在日時節 廖仲愷・朱執信등과 美州지방의 華僑들에게 清帝타도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한다.

29) 婦女聲(上海, 中華女界聯合會刊, 1921.12).

婦女評論(上海, 民國日報副刊, 1921.8).

婦女週報(上海, 民國日報副刊, 1923.8).

30) 談社英, 『婦運四十年』, 再版, 臺北, 1951, p. 65..

첫째로 捐募활동이다.

李自平(馮自由妻)은 친가가 香港의 巨富여서 「中國日報」 발행을 지원하였다. 莊漢翹는 자신이 혁명起義에 참여하는 한편, 대량의 군사비용을 조달하였다. 徐慕蘭(粵海關官員 李慶春之妻)·宋銘黃·劉鴻博·鄭妙卿·黎金庭·何振 등은 현금 혹은 首飾들을 軍餉조달을 위하여 헌납함으로써 혁명군활동을 지원하였다.³¹⁾ 辛亥革命 이후에는 단체조직을 통하여 募金活動을 추진하지만 당시의 중국의 부녀는 경제력을 갖지 못한 터이므로 경제적인 도움은 컸다고 할 수 없지만 혁명을 지원했다는 의미는 크다.

둘째로 일반적인 軍에 勤務이다.

혁명기관에 나아가서 요리를 비롯한 혁명지사들의起居를 돌보는 家務가 주된 것이다. 부녀들은 평범한 家務이외에도 旗幟製作의 담당자였다. 일찌기 何香凝은 日本에서 孫文지도아래 革命旗幟를 수놓았고 陳淑子·盧桂屏·李自平·徐宗漢·鄭妙卿·陳志堅·黃芙蓉·黎錦庭 등은 新軍起義 때에 수십개의 깃발을 제작하였다.

또 탄약제조에 徐宗漢·莊漢翹·卓國用·黃悲漢·李晚媛·宋銘黃·麥慶蓮·梁定慧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한다.³²⁾

그밖에 文書의 作成·保管업무에도 참여하였고 傷兵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臨時救傷隊〉를 辛亥年 가을에 조직하였다. 宋銘黃·陳勳·梁英顏·鄧慕芬·黃淑政·黃芙蓉·李成智·廖若蘭·陳偉梅·黃漢興 등이 참여하였고 그들은 곧이어서 조직된 廣東女子北伐隊에 모두 참가하여 北上하며 의로활동을 하였다.

세째로 掩護聯絡활동이다.

1908년 同盟會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1908년 廣州에 徐宗

31) 林維紅, 上揭論文, pp. 306~307.

32) 小野和子, “辛亥革命時期 婦人運動—女子軍と 婦女參政權—,” 『辛亥革命の研究』(小野川秀美·島田虔次編, 東京: 摩書房), 1979, p. 291.

33) 同上.

郭格文, “辛亥革命時期的女英雄—徐宗漢—,” 『中國婦女』, 1981년 81년 10월 호, pp. 3~4.

漢·高劍文·潘達微·何輯民·胡少翰·朱述唐이 〈守眞閣綾畫店〉을開設하고 정보연락처로 삼았다. 1910년에는 廣東新軍의 주요기관으로 ‘清水濠’를 짓고 胡寧媛을 女主人으로 僞裝시켜 革命眷屬으로서 정보연락책으로 활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甘家巷·大石街·小東營·河南溪峽·粵秀里·萬福里·蓮塘街六十四號·仙羊祥龍里 등에 혁명의 眷屬이나 傭僕으로 위장하여 혁명을 지원하였다.

네째로 운수공작의 참여이다.

1910년 廣州新軍起義때 徐宗漢·李自平·陳淑子 등은 香港에서 광주까지 주머니에 炸藥子彈을 青天白日旗(革命旗幟)를 덮은 채로 운반해왔다. 또 1911년 9월 廣東前山에서 新軍이 起義하였을 때 陳志堅·林秀華·蕭世冰 등이 香港에서 粵門까지 탄약을 운반하였다.³⁴⁾

다섯째로 起義에의 참가다.

1910년 2월에 있었던 廣州新年起義에 앞서 起義가 일어나면 봉화를 붙여야 한다는 명령을 수행하였다. 즉 徐宗漢은 南方支配의 命을 받고 李應生·胡寧媛·林道勉·黃俠毅·方紫楠 등과 半城高第街宜에서 봉화대를 개설하였다.

그후 辛亥革命起義에는 직접 참여하게 된다.

先鋒隊·敢死隊 800여명과 放火員 50여명을 20여곳으로 분리배치하여 廣州市를 공격할 때 卓國華·國興姊妹·徐宗漢姊妹·莊漢翹·宋銘黃·何少卿·胡佩元·黃悲漢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호령의 불일치로 크게 작용할 수는 없었지만 廣州城공격에 많은 부녀들이 직접 참여한 것을 계기로 同志의 婚姻의 良緣도 가능해진 것이다.³⁵⁾

廣東光復起義 실패 후 辛亥年 9월 15일, 前山新軍起義 때에는 鄭妙卿·陳志堅·黃芙蓉 등이 신군을 따라 前山공격에 참여한다. 黃芙蓉은 急先鋒

34) 同上, pp. 314~315, 小野和子, 同上, pp. 290~291.

35) 談社英, 前掲書, p. 65, 林維紅, p. 321. 小野和子, p. 291.

隊를 이끌었고, 劉鴻博은 循軍參謀長·宋銘黃은 惠軍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女革命志士들은 廣東光復을 위한 군사적 행위에 同助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내었다.

光復이후 廣東女子北伐炸彈隊를 조직하게 된다. 100 여명³⁶⁾ 대원이 1912년 2월 22일 北伐遠征에 참가하였다. 徐慕蘭이 隊長을 맡고 各種起義에 참여하였던 卓國興·梁國體·黃芙蓉·鄧慕芬·宋銘黃·黃劍生·陳志堅·鄒紫溟·梁綺川 등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騎馬術·射擊을 단기간동안 훈련받은 후 男子軍服을 입고 北上軍에 가담하였다. 張勳作戰에 참가하였으나 主로 軍中에서 간호나 군량운수공작에 참여하였을 뿐 實戰에 임한 것은 아니었다. 그후 南北妥協에 의하여 4일에 귀향하게 되었다.

비록 實戰에서의 공헌은 적다고 하더라도 女子北伐隊를 비롯한 各地에서의 女子軍 조직은 부녀운동사에 큰 의미를 띤다. 우선 전통적으로 閨門內에 머물던 부녀들이 練兵場에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군사훈련을 받고 男子들과 同一한 陣中에 섰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회적 충격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男子와 對等한 의식을 갖었었고, 대등한 救國·愛國의 行爲의 실천자들이다. 따라서 과거의 중국부녀의 사회적 劣位를 변화시키는데 실제적인 행위자로 등장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清末이래 革命暗殺組織團體에 많은 부녀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 同盟會 일부동지들은 支那暗殺團을 조직하였는 바 徐宗漢·李應生이 香港分機關에 가입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그후 丁湘田 등이 동조하였다. 이들은 廣州 東方暗殺團 조직에도 가담한다. 徐慕蘭·卓國興·黃悲漢 등이 추가되어 몇건의 암살사건에 연루되어 활동한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다.³⁷⁾

36) 林維虹, p. 323, 100 명이라고 하였으나, 小野和子は 30~40 여명이었고 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20 여명으로 줄었다고(p. 288) 異見을 보인다. 廣東婦女界參加革命的回憶에 의거한 주장이다. (曹連斌, “同盟會在港澳的活動和廣東婦女界參加革命的回憶,” 『辛亥回憶論文集』, 2, 1962, pp. 302~32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革命志士의 活動은 중국부녀운동이 愛國一救國運動을 先해야 한다는 國民黨의 創導者 孫文의 三民主義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하고 추진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辛亥起義로 清朝가 打倒된 후 民主政애의 참여운동, 즉 부녀운동 본래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고 추진되었을까.

民國初年에는 軍閥과 政客의인 세력의 擡頭로 하여 革命思潮가 低落된 형편이었다. 따라서 國民革命이 성취됨과 동시에 보장되리라고 기대하였던 女權思想 역시 消沈을 면할 수 없었던 바이다.

그런 중에 五四運動을 前後하여 女權思想은 다시 부활되게 되었다. 특히 1919년 五四事件 발생이후 中國社會思潮발생에 대단한 변동이 일게 되었고 女權思想(潮)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胡漢民·戴季陶·朱執信·廖仲愷등 孫文을 도왔던 인물들에 의해서 중국사회문제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 및 부녀지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³⁷⁾

辛亥革命過程에서의 부녀들의 혁명활동에의 참여, 특히 軍事活動에 대하여서는 實踐的 側面에서는 未洽하였고 또 그들의 社會復歸를 둘러싼 無理한 面이 있었지만 國民의 義務履行이었고 男女의 能力差를 문제로 삼지 않은 인식을 행동실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共和國의 國民으로서 부녀들은 마땅히 參政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辛亥革命 이후의 부녀운동의 主된 관심은 參政運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軍事活動을 지원하였던 조직체들은 參政運動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改組하게 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 대표적인 例가 上海에서

37) 林維紅, 上揭論文, pp. 328~29. pp. 344~45.

朱秀成, 上揭論文, p. 44.

38)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宣傳部, 婦女問題重要言論集, 1929. 7.

胡漢民, “女子解放從那裏做起.”(pp. 24~26).

廖仲愷, “女子解放從那裏做起.”(pp. 27~28).

戴季陶, “女子解放從那裏做起.”(pp. 28~36).

——, “勞動者解放運動與女子解放運動的交點.”(pp. 41~62).

朱執信, “男女解放就是女子解放.”(pp. 37~40).

蔡子民, “現代婦女的苦悶問題.”(pp. 62~86).

창립된(1911. 11. 12) 中華女子參政會가 중심이 된 활동이다. 그들은 임시정부에 참정권을 요구하는 法議案을 孫文에게 제출하였으나 1912년 1월 28일 開院한 南京參議院이 制定한 臨時約法에는 “中華民國人民一律平等 無種族階級宗教之別”(2章 5條)로 규정되었을 뿐 “男女”二字는 넣지 않았다. 그후 곧 孫文이 退陣하므로 民國初의 參政權 획득은 霧散되었을 뿐이다.³⁹⁾

南京參議院에 진출하여 參政權을 획득하려던 노력이 실패한데 비하여 革命的 근거지 廣東에서는 婦女參政權運動이 승리하게 되었다.

廣東은 黃花崗起義로 辛亥革命의 導火線을 만들었으나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어서 일시 침체를 면하기 어려웠다. 1911년 11월 9일 兩廣總督 張鳴岐가 潛逃함으로써 명화적으로 光復을 이룩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러 기관에 革命黨人이 접하고 胡漢民이 都督(省長)으로 취임하게 된다.⁴⁰⁾ 胡漢民은 1911년 12월 8, 9 양일간 各團體代表者會議를 개최하여 廣東臨時省會簡章을 토의결정하였다. 부녀들은 <女界權利研究社>를 조직하여 男女平等的인 法制定을 요구하였다. 省會簡章이 심의되는 동안 莊漢翹는 代議士로 추대받고 부녀가 마땅히 代議士의 半數를 차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모두(남자)가 반대하여 극렬한 시위와 열렬한 발언을 하였다. 그 결과로 比例選舉制를 채택하고 120명의 代議士 중 同盟會 출신 20명 배당 중 10명의 부녀들이 참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최초로 부녀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다.⁴¹⁾

39) 李又寧·張玉法主編, 『近代中國女權運動史料』, 1842~1911, 下, 臺北, 傳記文學社, 1975, pp. 1375~1381.

劉王立明, 『中國婦女運動』, 上海, 商務印書館, 1937, p. 184.

「中華女子參政會宗旨 以實現女子參政及立法的手續求得女權之保障」.

徐輝琪, “唐群英與“女子參政同盟”一兼論民初婦女參政活動,” 『貴州社會科學』, 1981年 4期, pp. 30~37.

40) 蔣永敬, “胡漢民提倡女權的思想及其成就,” 『民國胡展堂先生濟民年譜』, 臺北, 商務印書館, 1981, pp. 549~572. 참조.

41) 小野和子, 上掲論文, pp. 363~364.
省議代議士資格條件(5條)

선출된 女代議士는 莊漢翹·廖永筠·鄧愛明(陳蕙芳)·張沅·吳桂娥·易粵英·文翔鳳·李佩蘭·梁慕貞·倫耀이다.⁴²⁾ 이들은 대개 革命學校 출신으로 교사 및 학생들이다. 비록 근대의회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라는 혹평도 받았지만 참정의 역사가 日淺한 중국에서 부녀참정의 효시라는 점에서 귀한 출발이라 하겠다.

그후 1912년 11월 12일 省議會가 정식으로 開院되어 부녀들에게 議員選舉 및 被選舉權을 남자와 동등하게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가 案件으로 되어 격렬한 토의 끝에 68:35로 否決되는 慘敗를 당하게 되었다. 이때 女界代表 鄧博倩과 여자유학생대표 蘇淑貞 등이 請願書를 제출하고 抗辯하였고 격렬한 시위도 있었다.⁴³⁾ 그러나 이때 남자와 대등한 참정권 획득에는 실패하게 된다. 그후 湖南省憲이 채택되는 경험에 있게됨에 따라 廣東省에서도 〈廣東省自治案〉이 채택되게 된다. 이때에 부녀들도 남자와 동등한 선거 및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된다.⁴⁴⁾

그런데 廣東에서는 부녀운동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조직으로서 〈中華女界聯合會〉가 성립된다. 이것은 광동의 부녀참정권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녀들이 연합하여야 될 필요성을 경험한 결과로 결성되게 되었다. 革命志士들인 莊漢翹·伍智梅·程立卿·張竹君·唐允恭·何佩蕙·孫君灌·李秋佩·李淑華 등이 發起하여 결성을 보았다. 회원은 數千명이라고 전하며 地方分會組織도 형성될 수 있었다.

同會의 주요사업은 부녀교육이었다. 이것은 抗戰期에는 재정적 어려움

甲. 年令 21 才 以上.

乙. 廣東本籍者 5 年以上 廣東居住者,

42) 談社英, 上揭書, pp. 65~67.

談社英, 上揭書, pp. 65~67, 朱秀或, 上揭論文, p. 44.

高山, “中國的女權運動,” 『東方雜誌』, 19卷 18號, 1938. 11, p. 87.

43) 同上, p. 67.

수천명의 부녀가 省議會 건물을 포위하는 극한적 대립마저 있었으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44) 鍾貴陽, “二十年來中國의 婦女參政運動,” 『女子青年』, 12卷 1期, 1933. 1. p. 6.

으로 중지되었다. 〈女子職業學校〉〈工讀學校〉〈工人子弟學校〉가 그것이다. 그외에 14個의 平民學校도 開設運營하였다고 한다.⁴⁵⁾

同會는 훗날 廣東女界聯合會로 改稱하여 抗日戰에 대규모의 抗戰救國運動을 추진하는 母體로서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1923년 第1次 國民黨全國代表大會에서 決議된 國共合作以前 이후의 廣東婦女運動의 樣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의 부녀운동이 資產階級·知識人婦女들의 革命參加運動이었고 參政運動이었던데 반하여 基層民 즉 농촌부녀·工人婦女들을 운동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⁴⁶⁾

즉 孫文이 容共을 선언한 후 國民黨中央黨部에 설치한 婦女部(委員會)의 부장겸 廣東省黨部婦女部長에 何香凝(廖仲愷妻)가 임명된다. 그후 이어서 1925~26년에는 蔡暢·鄧穎超 등이 부녀공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의 참여는 장차 광동부녀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큰 변화를 예견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廣東婦女運動은 점차로 群衆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환언하면 辛亥革命을 前後한 婦女運動은 革命運動과 參政運動으로서 지식인 부녀, 資產階級출신의 부녀운동이었다면 이후의 부녀운동은 學生運動·工人運動·農民婦女運動의 성격을 띄게 되고 이는 곧 無產階級的 社會主義共產革命의 成就로 그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동에서는 이때에 이미 다른 지역과는 달리 廣三鐵路局에서 부녀들이 考試를 통해서 就業의 기회를 획득하게 됨으로서 중국부녀들이 史

45) 談社英, 上揭書, p. 66.

46) 向警予는 당시 廣東에서 추진되었던 參政權운동을 비판한 바 있다.

向警予, “女子向放與改造的商榷,” (1920) 『向警予文集』(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0), pp. 49~50

「... 因此我解于廣東女界要求參政權與分家權的運動 實際懷疑 在主張者的意思 大概以爲對謀女子解放與改造 須以教育平等與經濟獨立入手 然非女子自身操有立法權 則終恐離如所期 所以不得不從事參政運動 亦不可謂全無思慮全無計劃…」

上 처음으로 中國政府機構에서 취업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⁴⁷⁾ 또 한 廣東省立 第1中學에 부녀들의 입학이 허용되는 男女同校의 실천이 가능한 형편이었다.

한편으로 중국공산당 청년단원들이 각급여학교에 新學生社 조직을 추진 하며 군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工人운동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때에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國民黨 指導婦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廣東婦女聯合會가 운영하던 女勞工學校등에서도 공산당원들이 군중공작을 전개하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廣東婦女聯合會는 1924년 3월 8일 三八節紀念大會(國際婦女節·사회주의적 성향을 띠)를 召集하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거행된 三八婦女大會로서 많은 여학생이 참여한 것이 특색이었다. 大會는 何香凝부녀부장이 主宰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급학교남녀학생공산당원들이 진행하였다.

同大會에서 채택된 부녀해방의 口號는 “解放中國殖民地地位,” “解放婦女所受資本制度的壓迫,” “要求婦女勞動平等權·教育平等權·女子參政權,” “排除納妾及一夫多妾制,” “要求女工保護·生育保護·兒童保護立法,” “革除賣買女子爲婢的習慣,” “廢除娼妓制度”⁴⁸⁾였다. 이러한 구호는 부녀의 覺醒을 불러일으키는 契機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1925년 三八婦女節前에 廣東婦女解放協會가 결성을 보게 된다. 이때 鄧穎超·蔡暢 등이 합류하여 農工婦女들을 동원하여 조직하고 織字組나 平民夜校(22個所)를 開設組織하여 선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으로 同工同酬를 내세우며 罷工을 지도하였다. 농촌부녀·工人婦녀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注力하였다. 이 경우 帝國主義打倒를 표방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1925년 5·30事件(上海)을 계기로 공산당의 기층사회조

47) 談社英, 上揭書, p. 67.

電報局·郵政局·電話局·銀行등 부녀취업은 여전히 규제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48) 婦女雜誌, 1924년 4월호.

적의 확충을 기하게 되었다. 그들을 婦女干部의 배양을 목적으로 1926년 何香凝이 婦女運動講習所⁴⁹⁾를 개설하자 各地로부터 부녀지도자들이 몰려들게 된다. 그러나 1927년 7월 國民黨 廣東政府가 공산당과의 결별을 선언하였고, 광동콤공을 케멸한다(12. 15). 공산당과 國民黨 左派가 武漢政府를 수립함에 따라 國民黨員으로서 何香凝·蔡暢·鄧穎超가 영도하던 廣東婦女運動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廣東婦女解放協會가 主導하던 群衆婦女運動은 地下工作으로 전환해야만 하게 된다.

1927년 北伐에 승리를 거두고 國民黨政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民法上 완전한 남녀평등을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이시기를 婦女參政運動의 新紀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⁵⁰⁾ 그러나 民法上的 동등이 선언되었지만은 1927년 이후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부녀운동자들은 각기의 進路를 선택해야만 하였다. 民族相殘의 悲劇 속에서 反封建的 婦女運動의 추진이란 사실상 그 한계점에 도달하였던 것이다.⁵¹⁾

Ⅳ. 「廣東女界聯合會」의 抗戰運動

廣東女界聯合會는 1919년 辛亥革命同志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에 조직된 〈中華女界聯合會〉를 改稱한 것이다. 창립초기에는 5·4運動期の 婦女思想의 영향을 받아 參政運動·反封建的 社會改革·改善을 추구하려는 교육운동이 주요 활동목표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23년 國民黨婦女委員會가 설치됨에 따라 國民黨의 부녀정책방향에 따라야만 하게 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1923년이래 廣東부녀운동은 國民黨 左派의 부녀지도자들,

49) 大革命時期的廣東婦女運動(婦女運動參考資料), 『中國婦女』, 1957년 9월호, pp. 5~7.

50) 鍾貴陽, 上揭論文, p. 7. 皮以書, 上揭書, pp. 58~71.

51) 魯婦, 『婦女問題新講』, 香港, 新民出版社, 1949. 4, pp. 26~38.

이 시기의 농촌부녀 女工들이 부녀운동의 주체로 浮上되는 과정과 그 문제점을 詳論하고 있다.

何香凝을 비롯한 蔡暢·鄧穎超 등의 지도로 國共合作的 婦女運動의 實現地가 되었다.

그런 중에 1925 년의 5·30 사건, 1927 년 이래의 北伐 및 共匪소탕전을 전개한 國民黨 南京政府의 세력권에서의 廣東은 일시 부녀운동이 취약해진 면이 나타났다. 물론 이 기간동안 1931 년 제정된 〈中華民國訓政時期約法〉에 男女에게 완전히 平等한 권리가 주어짐으로써 부녀운동의 이상과 國民黨의 政綱政策이 具現되는 발전적 措置가 있게 된다. 그러나 國共의 對立이라는 民族相殘의 국가적 비극은 부녀해방이라는 본질적 부녀운동의 실질적인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蔣總統 부인 宋美齡의 주도아래 이기간 동안에는 〈中國婦女慰勞將士會〉(1931)와 〈新生活婦女指導委員會〉가 추진설립된다. 따라서 廣東女界聯合會도 이 기구가 추진하는 前方將士의 위문과 清潔衛生·儉約·현대생활의 복잡하고 긴장된 상황에서의 적응력배양, 識字班 운영등을 통한 단결력을 육성하는 新生活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대동한 입장에서 부녀의 사회적·국가적 공헌을 유도하고 부녀들로 하여금 자기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중에 1937 년 7 월 7 일의 盧溝橋事變의 폭발은 부녀계의 全面抗戰體制로의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우선 國民政府가 主導한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中國婦女慰勞自衛抗戰壯士總會〉設立(1937. 8. 1. 南京) 軍備(衣)제조, 구제품모집·傷兵치료·전방장사위로에 부녀를 동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2. 「戰時兒童保育會」성립(1938. 3 於武漢) 臨時保育院을 설립하여 難童을 收容코자하여 全國의 40餘所에 2 만여명 이상을 수용하였다.

3. 「新生活運動總會婦女指導委員會」召集(1938. 7. 廬山)하여 〈動員婦女參加抗戰建國工作大綱〉를 만들어 일체의 工作을 同委員會가 집행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⁵²⁾

따라서 廣東女界聯合會의 抗戰工作도 蔣總統 부인이 영도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抗戰方向을 따라야 했을 것이다.

廣東女界聯合會의 宗旨은 「聯合各界婦女致力於國民革命 促進三民主義之實現 關於提倡婦女運動 保障女權以謀自身及國家之福利」이다. 이제 국가의 存立이 傾刻에 이르러서 10餘年の 稍懈를 극복하고 國家觀念과 民族意識에 투철한 실제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抗戰運動은 口號나 외치고 傳單을 뿌리거나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제행동으로서 이것은 직접간접적으로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장병들의 전투의지를 고취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한 사회의 平衡狀態를 유지해야만 하는 절실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계획아래 조직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中日戰 勃發直後에는 同會는 다음과 같은 各隊를 組織하여 各地에 파견하였다.

1. 募捐隊: 〈婦女救國籌賑會〉를 組織하여 “二角愛國券”를 팔아서 東北軍과 綏察抗敵將士들을 지원하였다.
2. 宣傳隊: 日本의 中國侵略情形과 我軍의 苦抗敵상항을 알림
3. 救護隊: 市의 各醫院과 護士學校의 지원을 받아 장병의 療養사업 추진
4. 慰勞隊: 前線慰勞

그러나 戰況의 다양한 변화와 前線의 확대로 좀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抗戰戰略이 요청됨에 따라 戰時工作委員會 散下에 다음의 세 기구를 組織하여 분리 운영하였다. 그 公작대상은 다음과 같다.

A. 〈戰時婦女服務團〉을 組織(1938. 1)⁵²⁾

52) 皮以書, 上揭書, pp. 74~80.

『抗戰與婦女』, 重慶·獨立出版社印行 戰時綜合叢書 第3輯之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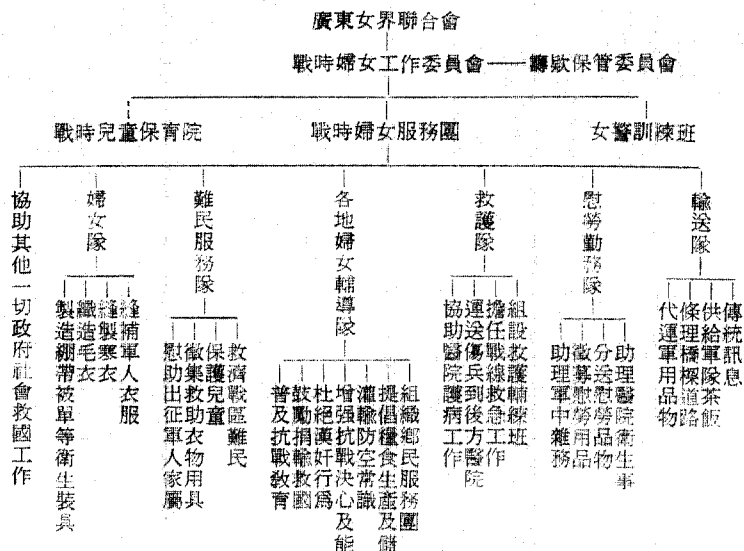
婦女動員與抗戰, 婦女動員基本條件 婦女動員的方法 戰時婦女應有的工作 中國婦女運動的過去與將來

등 상세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지면관계로 典據만을 밝히둔다.

53) 伍智梅, “廣東女界聯合會戰時婦女服務工作概況,”

廣東戰時婦女服務團特刊, 『廣東婦女聯合會』, 廣東, 1938, pp. 3~4.

廣東女界聯合會戰時工作系統表



(出典) 前掲『廣東女界聯合會』, p. 68, 附錄

創團 당시 단원은 86 명으로 예비 훈련을 마치고 2 월부터 각지에 파견 근무하였다. 軍事國防 이외에 經濟國防・精神國防을 추진하기 위하여 女性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농촌부녀를 抗戰활동에 참여하도록 動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⁵⁵⁾

1. 後方工作

1) 增産・2) 救護・3) 宣傳工作・4) 鼓動捐輸救國

2. 戰區接濟軍隊工作

1) 救護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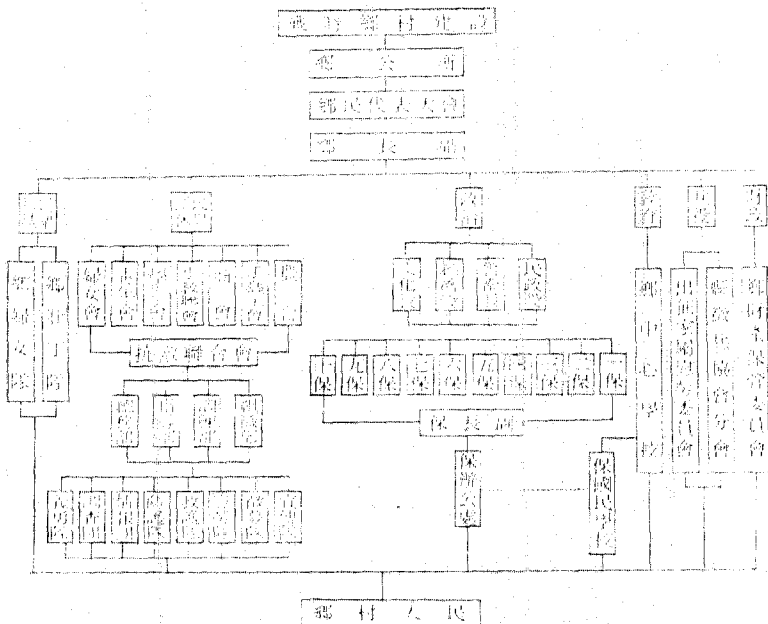
2) 軍中雜務處理

54) 黃翠鳳擬, “廣東女界聯合會戰時婦女服務團工作大綱,” 同上, pp. 26~38.

55) 農山, 戰時鄉村建設論, 上海, 戰地出版社, 1942, pp. 62~64.

戰時鄉村政治建設에서 婦女會組立은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3) 士兵慰勞
 - 4) 工程運輸
 - 5) 偵探敵情
 - 6) 反漢奸工作
 - 7) 軍事訓練
3. 救濟難民及死傷士兵家屋
- 1) 難民收容所 운영
 - 2) 士兵家族 救濟
4. 國防精神敎育
- 1) 抗戰談話會를 개최하여 抗戰方針과 方法을 결정하도록 한다.
 - 2) 中학생들을 動員하여 選戰을 확대할 일



- 3) 농민항전진열실 설치·벽보 및 항전교육순회 文庫설치
- 4) 民校를 이용하여 민족의식과 전쟁상을 교육하도록 한다.
- 5) 小學校敎員들로 하여금 가정주부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상이 同會戰時婦女服務團의 工作大綱이다. 各隊는 各項의 기능에 맞도록 의사·간호원·各界名士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各隊의 최종적 목표는 全民의 力量을 發動하여 人民抗敵의 굳건한 保壘를 이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부녀운동적 측면에서도 일보전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戰後의 부녀운동이 도시중심의 지식부녀나 공장노동부녀가 중심이었는데 반하여 농촌부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역량이 保國·救國운동에 투자된다는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부녀운동의 基層組織確保 일 것이기 때문에서이다. 요컨대 戰時婦女服務團의 工作은 生産·敎育·宣傳·慰務로 집약될 수 있겠다.

B. 女警訓練班

廣東省警察局的 도움으로 女警人才를 배양하여 300여명 지원생중 1938년 1월 25일 시험을 거쳐 62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받고, 2월 중순경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다.

C. 戰時兒童保育院 운영

전쟁이 연장되고 戰區가 확대됨에 따른 忠勇將士의 遺子女를 收容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⁵⁶⁾

이상과 같이 廣東女界聯合會戰時工作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同會는 鬱南·鶴山·連縣·南雄·三水·五華·新會·惠來·揭陽·豐順·潮安·臺山등 各縣에 支部를 설치하고 慰勞工作과 前方戰士 필수품(綿衣·軍靴·軍餉)을 조달하는데 全力量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救國을 위한 抗戰이 막중한 일이어서 곳과 때에 맞는 實際工作에 임하

56) 廣東女界聯合會, 附錄, “戰時兒童保育院, 草案,” pp. 64~67.

彭 懸, “戰時兒童保育問題,” 東方雜誌, 35卷 3號, 1938. 2. pp. 51~53.

는 여유마저 찾아 볼 수 있었다.

요컨대 抗戰期の 廣東女界聯合會의 活動은 同會의 戰時服務團宣言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廣東婦女들이 일치단결하여 抗戰에 全力量을 기울였던 것이다. 따라서 全人力을 勝戰을 위한 抗戰體制로 整備해 나가야만 하였던 近代中國의 政治的 危機 속에서 婦녀운동의 방향과 실재는 抗日救國運動으로 集約될 수 밖에 없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시기 廣東婦女運動의 특색은 抗戰力量으로의 농촌부녀人力의 活動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中國의 全國의인 노력의 일환이었기도 하지만 廣東의 경우는 他地域에 비하여 先進的인 역사적 배경이 있다.

즉 廣東省 海豐·陸豐縣 出身地主였던 彭湃(1896~1926) 主導下에 1922·23년에 걸쳐 廣東省 全域에 결성되었던 農民協會活動의 영향이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婦녀농민조직(鄉村婦女會 혹은 農村婦女會)도 結成을 보게된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혼과 혼인문제·여권문제였으며, 그외에 全海陸豐縣 婦녀간의 의견의 소통으로 농촌부녀의식개발에 공헌하였다. 물론 이혼문제의 간여로 때때로 남녀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나 공산당·국민당 좌파의 계급투쟁적 차원으로의 婦녀문제의 방향전환은 그 正當性을 說得받게 도움이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1924년 2월에는 孫文의 “工農扶助”의 정책아래 國共統一戰線이 결성되었다. 國民黨政府는 廣州에 農民運動講習所를 설치하여 1924년 7월~1926년 10월까지 6期에 걸쳐 농민운동간부를 양성하였다.

요컨대 革命을 추진하는 先決要件으로 농민을 조직하고 그들의 自覺을 促求한 점에서는 工會와 같았다. 다만 工會中心의 운동이 1925년 5·30事件 이전에 活氣를 띠었다면 농민운동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時差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그 수에 있어서 농민은 단연 우세하였기 때문에 농민조

57) 金康貽謀 編著, 海陸豐農民運動, 廣東, 人民出版社, 1957.

58) Helen F. Snow(Nyme Wales), *The Chinese Communist: Sketches Autobiographie's of Red Guard*, Westport Conn., Greenwood Publishing Co., 1957, Book I. *Red Dust*, pp. 199~202.

직의 확보야말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그 사회의 基層組織 확보의 勝敗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고 보겠다.⁵⁹⁾ 따라서 「廣東女界聯合會」의 抗戰運動의 첫단계는 부녀역량의 최대동원이 그 임무였다.⁶⁰⁾ 농촌부녀의 抗戰意識鼓吹와 物資節約一增產으로 대표되는 부녀운동으로서의 抗戰意識에 廣東女界聯合會는 농촌부녀의 계급투쟁의식을 加味함으로써 장차 중국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⁶¹⁾

V. 結 語

이상에서 中國同盟會를 母體로 하여 성장한 中國國民黨 政權이 지배하였던 기간동안 廣東을 중심으로 전개된 부녀운동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필자는 中國國民黨의 婦女政策의 思想的 基底와 婦女政策의 樹立過程 및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國民黨 婦女政策이 執行되는 過程중에 廣東婦女들이 추진하였던 부녀운동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시기는 1911년 辛亥革命을 前後하여 中日戰爭이 勃發되는 1937년을 고비로 하였다. 즉 國民大革命時代와 中日戰爭・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까지의 廣東婦女運動을 總括적으로 管掌하였던 「廣東女界聯合會」의 抗戰運動을 考察해 보았다.

이같은 접근방법을 시도한 것은 近代中國革命의 策源地인 廣東이 中國의 他地域과는 달리 近代意識이 充滿한 경험을 가졌다는 역사적 배경에 着眼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中國國民黨 婦女政策의 思想的 基底는 孫文의 民權・民主・民生의 三民

59) 末次玲子, “中國農村における婦人解放運動の 原點,” 『歴史評論』, #333, 1978. 1, pp. 85~89.

60) 青 凡, “如何動員家庭婦女,” 『東方雜誌』, 35 卷 21 號, p. 87, pp. 86~89.

61) 馬媿修, “回憶廣東婦女戰時工作隊, 工作實驗區和婦委會,” 『廣東文史資料』, 34, 1982, pp. 180~187.

中國婦女慰勞自衛抗戰將士 廣東分會工作概況, (1938. 4. 20)에는 실제의 抗戰支援 내용이 詳細하게 기록되어 있다.

主義精神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부녀를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때까지의 전통사회 속에서의 中國婦女의 劣位를 극복할 수 있도록 中國國民黨은 지원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것을 위한 제도적 법적 조치를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다음으로 廣東婦女運動의 내용이다.

근대 중국의 부녀운동은 초기에는 清朝의 專制君主를 打倒하고 民族・民主國家를 건설해야 하는 革命運動과 연결되어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혁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혁명교육을 추진하면서 혁명의 實際에도 참여하였다. 예컨대 女子北伐隊・炸彈隊의 조직・暗殺의 參與 등 군사적으로 實戰에 참여하는 極端的인 例와 聯絡・軍務參與・補助등을 支援하는 임무도 감당하였다.

다음단계로 共和政 수립 이후에는 參政의 기회를 模索하는 과격하고 격렬한 부녀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開明知識婦女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다수 중국부녀들을 위한 부녀운동의 성격을 띠 수는 없었다. 그런 중에 1919년 5·4 사건을 전후한 시기의 救國・愛族의 民族意識 고취는 부녀들의 사회의식・혁명의식을 高揚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좀 더 많은 부녀들의 의식적 변화와 인식을 추구하는 부녀운동으로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던 것이다. 그 결과 초기에는 女工중심의 工敝罷工을 유도하는 의식화교육・선전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농촌부녀로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이 시기에 특기할 것은 澎湃의 농민협회활동과 국민당 정부가 개설한 농민운동강습소를 통한 國民黨 左右派의 사상적 대립양상이 나타나는 점이다. 따라서 이 다음 단계의 부녀운동의 추진세력은 대다수 농촌부녀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게 해 주었다.

다음 단계는 參政・부녀해방을 위한 교육운동이 度外視되는 抗戰期の 돌입이다. 이기간 동안에는 國民黨 지배하의 부녀운동은 抗戰을 위한 全力活用이 주된 목표였다. 따라서 부녀의 정치・사회적 발전을 위한 부녀

운동이란 留保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國民黨 左派와 연계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密度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되는 것이다.⁶²⁾

이상과 같은 廣東婦女運動의 단계적 특징 속에서 中國近代政治史의 一面을 파악하게 된다. 國民黨 右派 중심의 부녀정책은 中產階級·知識婦인들이 母體가 되어 이른바 男女平等의 社會를 具現하려는 西歐的 性格의 婦女運動方向을 指向하였는데 비하여 國民黨 左派와 단결된 공산당의 부녀정책방향은 無產大衆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성격을 띤 부녀운동이었던 것이다. 廣東이라는 혁명의 策源地로서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은 부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兩面的 性格을 모두 受容하고 새로운 方向을 摸索해 나가야만 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婦女運動 역시 이러한 역사적 현상과 같은 보조를 맞춰 나아가야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廣東婦女運動은 民主革命의 추진세력이었던 中國國民黨領導下에서 추진되면서도 공산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차 좀 더 구체적인 史實들을 통하여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近代中國婦女運動의 實像을 綜合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關鍵이 되리라고 믿으며 試論的 考察을 행하였던 것이다.

62) 拙稿, “中共婦女運動에 관한 研究. — 創黨期에서 大躍進期까지 (1921~65) —” 1983. 未刊博士學位請求論文(西江大), pp. 86~123.